

공생의 생물학과 동학의 생명사상

강사 : 최종덕(독립학자, philonatu.com)

1. 강의 개요

1968년 하딘(Garrett Hardin, 1915-2003)이 발표한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현대 산업사회를 사는 우리 인간의 소유욕과 경쟁심의 본성을 잘 보여준 유명한 에세이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개인 소유지가 아닌 공유된 땅에서 공동의 협동행동 양식은 기대될 수 없고 결국 공유지는 망가지게 된다고 말하는 데 있습니다.

개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이기주의 행동양식만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공유지는 자기멸절에 이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점유욕망은 오늘날과 같은 글로벌한 초자본 사회에서 이기주의와 약육강식의 지배양식을 더더욱 확장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서구의 전통 철학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자유주의 철학의 원조인 존 로크의 수호자들은 개인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보장해줌으로써 이런 공유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소유권의 논리는 해결이 아니라 약육강식에서 말하는 자본권력자에게 소유를 무한 행사하도록 방치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안적 철학이 가능한 것인지 더 질문해야 합니다. 그 질문의 원형은 인간본성론과 연관되며, 그런 연관성은 여기 <<현대과학과 한국철학>> 시리즈 중 제가 강의했던 생명과 철학 1강에서 검토된 적이 있

습니다.

1강에서 우리는 현대생물학의 자연학적 인간본성론을 다루면서 조선 양명학의 철학적 인간학과 소통가능한 접점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현대생물학 중에서 생태학 분야의 공생론이 어떻게 조선말 부패와 외세에 대한 저항한 동학사상의 생명론으로 가로지를 수 있는지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를 맡은 저는 최종덕이라고 하며, 저는 현대자연철학 전공자로서 요즘은 생명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자료는 인터넷 홈페이지 philonatu.com에 아주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연결해 놓았습니다.

인간본성에는 이기적 행동성향만이 아니라 협동적 행동성향이 공재하고 있다는 생물학적 입장을 앞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 즉 인간본성이 하나의 고정된 틀이 아니라 이기성과 협동성이라는 두 트랙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말하는 ‘공유지의 비극’이란 이기주의 본성론의 인간학으로만 해석한 결과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현대산업사회의 난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은 결국 이기주의가 아닌 다른 트랙으로서 협동성 행동성향에 기반한 철학적 사유방식을 실현하는 데 있음을 설명하려 합니다.

반복하여 말해서 인간본성에는 이기주의 본성론에 기반한 소유욕과 경쟁심이 있지만 한편으로 이타주의에 기반한 협동성과 공생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하딘에서 로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현대 이기주의 기반 경제학이론에 이르기까지 이기주의 본성론이 논의의 주축이었다면, 협동성 행동성향에 기반한 이타주의 본성론의 철학적 패러다임을 되살려 보자는 뜻이 이번 강의의 본 주제입니다.

철학적 패러다임으로서 이타주의 본성론을 되살리는 작업이 미래사회의 한 가지 대안으로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타주의 본성론은 주류 생물학과 현대경제학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레섬(Thomas Gresham, 1519-1579)의 법칙에서 말하듯 실물 가치가 훨씬 높은 양화good money가 겨우 액면가치로만 유지되는 악화bad money에 밀려서 시장에서 사라지고 개인 금고에서만 겨우 존속하게 되는 양화의 상태가 이타주의 본성론의 이미지와 비슷하다는 데 있습니다.

인간본성론을 그레섬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은유적 비유는 가능합니다. 인간본성론으로서 이기주의는 명목가치는 아주 높은 것이 현실이지만 그에 대비한 실물가치 비율이 낮은 악화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이타주의는 실물가치는 높아도 그에 대비한 명목가치 비율이 매우 낮아서 양화에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실물가치가 훨씬 높아 양화good money에 비유되는 이타주의 본성은 명목가치에 의존되는 악화bad money로 비유되는 이기주의 행동양식에 밀려서 결국 인간의 표면화된 행동양식으로 드러나기 어렵고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양화는 악화에 밀려 시장에서 사라지고 개인 금고에서만 유지되듯이 말입니다.

일상의 표면에서 사라진 것 같은 인간의 협동성 행동성향을 되찾는 것이 대안이며 구체적으로 그 대안의 하나가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생태주의 철학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태주의라는 말은 어렵기도 하고 모호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생태라는 말 대신에 공생이나 공존이라는 말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강의는 공생의 철학 혹은 더불어 사는 생활양식이 삶의 철학적 패러다임으로서 어떻게 가능한지를 타진하고 여러분과 함께 참여하는 실천 철학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공유지 비극의 대안으로서 그리고 공생의 철학적 패러다임으로서 우리는 서구의 철학 전통에서 벗어나 조선말 구국의 운동이었던 동학의 생명철학을 제시할 것입니다. 동학의 생명사상을 하나의 공생 철학 혹은 더불어 사는 일상성의 철학으로 설명하려 합니다.

오늘 이 강의에서 말하는 동학은 당시 부패와 외세에 맞선 동학의 사회-종교-정치적 측면 밑에 깔린 근원의 철학, 즉 생명철학 혹은 공생철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될 것입니다.

생명의 나침판을 갖고 동학의 공생이라는 키를 잡기 위하여 우리는 몇 단계의 사전 논의를 해야 합니다. 먼저 현대생물학에서 말하는 공생 개념과 생태 개념의 자연학적 기초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생 개념은 동물세포 속 미토콘드리아를 공생의 존재자로 새롭게 밝혀낸 현대생물학자 마굴리스의 '더불어 삶' living together의 생명과 생태 철학으로 지향됩니다.

그 다음 공생과 평등을 강조한 조선의 몇몇 지식인의 철학적 배경을 간단히 논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강의 본 주제인 동학의 사상을 생명철학의 관점에서 풀어 보겠습니다.

결국 한국의 실천철학인 동학 생명사상과 현대과학의 공생 생물학이 어떻게 연결되고 접합의 연결망이 가능한지를 여러분과 같이 머리 맞대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 공생의 현대생물학

먼저 현대 생물학에서 공생의 생물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역사와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생 개념을 정의한 생물학자 마굴리스(Lynn Margulis, 1938-2011)의 문장이 가장 많이 참조되고 있습니다. 마굴리스에 따르면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종 사이에 물리적 접합을 하면서 더불어 사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더불어 삶' living together이라는 마굴리스의 메타포는 서로 붙어 사는 다른 생물종들의 번식과 대사 그리고 호르몬 등에 의한 생체주기 등이 서로 어울려야 한다는 점을 포함합니다.

1990년대 이후 생물학에서 공생(symbiosis; Symbiose) 개념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유기체는 다른 유기체와의 관계 속에서만 생명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Paracer and Ahmadjian 2000, 13) 곰팡이와 바닷말의 밀착된 상호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사이먼 슈벤드너(Simon Schwendener 1868)로부터 과학적 공생 개념이 출발되었습니다.(Sapp 1994, 4)

마굴리스 이전부터 공생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독일의 균류학자 프랑크(Albert Bernhard Frank, 1839-1900)입니다. 1877년 프랑크는 개체 생명체 각각은 혼자 생존하기 어려운 생존결핍 상태이지만, 그런 개체들이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상호보완이 생기게 되어 생존과 번성에 성공적인 그런 버섯류 균류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관찰과정을 통해서 개체에 없었지만 개체들 사이의 상호관계가 창출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프랑크는 이런 현상을 공생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생기는데, 공생은 관계의 창출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공생은 공생자끼리의 결합을 보여주는 어떤 모종의 관계를 낳는다는 뜻입니다. 그 결합의 관계는 새로운 생명종을 산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생은 진화력의 추진요인이라고 보았다.(Sapp 1994, 10)

개별자 관점에서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것은 개체 유기체일뿐이고 관계는 보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공생자 관점에서 보면 개체 유기체는 물론이거니와 그들 사이의 관계도 존재자인 것입니다. 가시적이지 않지만 실재하는 “관계”의 실재성은 공생의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관계라는 관계가 먼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존재자에서 새로 생성된다는 점이 존재론적으로 중요합니다. 공생의 관계 역시 생명 개체처럼 서식환경과 기후변화의 급격한 변화에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하는 진화의 소산물입니다.

관계가 진화의 소산물이라는 의미는 관계성도 개체처럼 후대에 계승된다

는 데 있습니다. 관계성도 적응과 선택의 과정을 거치며 돌연변이도 겪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공생자 사이의 관계는 최적화됩니다. 이 강의 후반에서 관계론을 다시 논의하며 여기서는 원래 생물학 이야기로 돌아가죠.

앞서 언급한 공생 개념의 새로운 창시자 마굴리스에서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종 유기체들 사이에 물리적 접합을 통한 ‘더불어 삶’ living together의 생존양식을 말합니다.(Margulis 1998, p.2; “the living together in physical contact of organisms of different species”) ‘더불어 삶’이라는 마굴리스의 메타포는 서로 붙어사는 다른 생물종들의 번식과 대사 그리고 호르몬 등에 의한 생체주기 등이 서로 어울려야 한다는 점을 포함합니다.

공생은 생존가능성 survival possibilities을 높여주는 진화의 소산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참나무라는 우주』라는 책의 저자로서 곤충학자이며 생태학자로 잘 알려진 더글라스(Douglas W. Tallamy,)가 말하는 곤충의 생존가능성 향상이란 온도나 습도 등의 다양한 환경, 포식위험이나 스트레스 등의 다양한 외부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그런 능력은 개체 단독의 행동능력이 아니라 복잡한 공생의 상호관계로서 획득된다고 한다.

더글라스에서 공생은 기존방식과 다른 돌연변이와 유전적 변화를 일으키는 결과로서 새로운 변이를 낳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미생물 차원에서 새로운 공생 결합은 적응적 협동성을 발현하게 한 유전적 변이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더 복잡한 후생동물로 들어서면서 그런 설명도 부족합니다. 새로운 공생 결합은 외형적인 행동변화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Douglas 2010, 5장)

공생 개념은 진화론과 생태계 이론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공생 개념은 인문 생태학 human ecology과 만나서 생물학과 인문학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뤘가기 위한 이론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리학과 생태학을 같이 공부한 과학철학자 피콕(Kent A. Peacock)은 공생 활동이 행동형질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유전형질의 변화와 밀접함을 강조했습니다. 공생을 통한 협동행동은 생존 이익에 연결되고, 그런 생존이익 수혜자가 생존과 생식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들의 후손은 공생활동에 더 적합하게 됩니다. 이 의미는 공생의 협동행위가 유전적으로 계승된다는 뜻입니다. 공생 협동행위는 유전자 차원에서 자연선택되어 아주 빠르게 유전정보화 된다는 것이 피콕의 강조점입니다.(Peacock 2011,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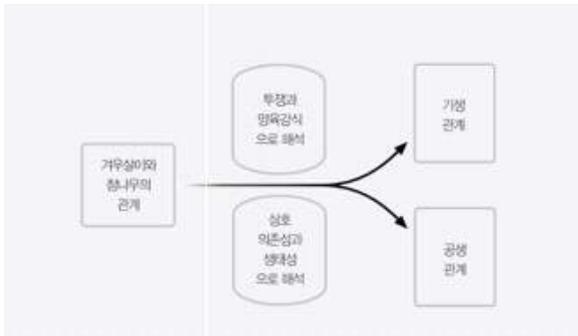
접합-관계contact-interrelation는 단순한 외형의 접합만이 아니라 흰개미 장내에서 공생하는 공생자 원생동물처럼 생화학적 접합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장내 공생관계처럼 항시적인 접합관계가 아니라 포식하고 당할 때만 접합하는 일시적 접합관계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고래와 크릴새우의 관계는 포식행위에서만 접합되지만 서식지를 공유하는 해양생태계 관점에서 그 둘 사이의 관계도 접합 공생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Peacock 2011, 223)

앞서 말했듯이 공생의 접합 수준은 다양합니다. 직접 접합이 아니라도 서식조건에서 생존과 보전에 소모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생물종이 협동하는 공생연대의 행동성향 일체를 요약하면 마굴리스가 제안한 “더불어 삶”living together이라는 개념입니다.

겨우살이의 생애사를 예로 들어봅시다. 겨우살이는 나무가지에 덩굴로 타고 올라 기생하는 식물인데, 딱다구리 외 다양한 새들이 겨우살이 열매 씨를 먹고 겨우살이를 퍼트립니다. 겨우살이는 전 지구에 퍼져있으며 온갖 나무에 다 덩굴로 올라가 살아갑니다.

한국에는 주로 참나무에 걸쳐 사는데, 찰스 다윈 『종의 기원』 3장 2절에 나오는 공생의 메타포로 지목한 겨우살이는 사과나무에 기생하는 사례입니다. 겨우살이가 오동나무에 기생할 경우, 오동나무에 심각한 피해를 주지만 그 외에 나무에는 별 다른 피해를 주지 않고 공존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 인간 중심의 입장에서만 보면 곤란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나무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종의 관계를 볼 수 있다면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쪽의 생각은 투쟁과 약육강식으로 관계를 해석하며, 정반대로 다른 쪽 생각은 상호의존과 생태적 연관성으로 그 관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연물들 사이의 관계를 전자는 기생관계로 후자는 공생관계로 달리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생 개념을 연구하거나 논의할 때 인간중심적 사고를 벗어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공생 생물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의 하나가 니치niche 개념입니다. 생태계의 주체는 개별 존재자가 아니라 니치niche입니다. 니치는 생태계 안에서 어느 개체군이나 집단이 구성원으로서 맡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관계의 지위를 뜻합니다. 니치로서 숙주와 기생체 혹은 자기와 비자기 사이의 관계들의 네트워크이며, 그런 네트워크가 바로 공존coalescent과 공생symbiosis의 존재론이라는 뜻입니다. 공존과 공생의 존재론은 다음처럼 정리됩니다.(최종덕 2023, 9장)

- 숙주와 기생체, 넓게는 자아self와 타자non-self 사이의 경직된 경계를 벗어나 있으며, 존재가 관계를 낳기도 하지만, 양자 간의 관계가 거꾸로 존재를 창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존재관계가 존재 공존성coalescence입니다.
- 생물학적 공존성은 형이상학적 사유의 추론이 아니라 자연 진화의 소산물입니다.

- 공존의 양상은 불변의 정지성과 목적적 완전성이 아니라 변화와 과정 그 자체입니다.
- 공존과 공생의 역동성은 니치 사이의 상호작용의 소산물이며, 상호작용을 통한 니치의 이익(혹은 손해)은 작용의 다양성 수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인간도 상호작용의 니치로서 상호작용의 소산물이며 따라서 다른 생물학적 존재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그런 존중을 통해서 인간 자신의 존속도 보장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물학적 존재자의 다양성은 (i)생태계 다양성, (ii)유전자 다양성, 그리고 (iii)생물종 다양성을 포괄합니다.
- 쉽게 말해서 공생 생물학에서 말하는 공생은 ‘더불어 삶’living together과 상대의 차이를 인정하는 생명 다양성 그리고 평등한 공존 coalescent과 공생symbiosis의 생명권을 의미합니다.

3. 인문학적 생명사상

생물학적 공존과 공생의 존재론은 인간사회에서 평등에 기초한 생명사상의 과학적 근거로 됩니다. 이와 더불어 인문학적 생명사상이 조선 말 동학사상에서 펼쳐지는데, 동학의 생명사상을 언급하기 전에 허균과 박지원 생명사상에 영향을 준 명나라 말 이탁오(李卓吾, 1527-1602, 이름 李贄)의 동심론과 친구론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3.1 이탁오의 동심론과 친구론

명나라 양명학자 이탁오(李卓吾/이지, 1527-1602)는 양명학에서 말하는良知 개념을 창발적 生機를 내뿜는 본성이라고 했다. 양명학의 양지 개념은 우리 강의 1장에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탁오는 동심을 강조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글자 뜻 그대로 동심은 거짓을 버리고 생각의 원형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이

탁오의 철학은 그의 저서 《분서》(焚書)에서 잘 나타납니다. 분서는 1590년 이지(李贄)의 나이 64세 때 호북(湖北) 마성(麻城)에서 처음 간행되었는데, 당시 금서로 지목될 정도로 유교 전통과 어긋나는 인간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분서 중에서 동심론은 아주 짧은 분량에 지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심이 양지良知의 원형이라는 것이 이탁오의 생각입니다. 정신능력에서도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정신능력에서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焚書, 童心說).

이탁오의 동심은 절거순진한 마음으로 거짓 없는 진실성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실한 마음, 거짓을 끊어버린 순진의 본심, 聞見이전 처음의 모습, 美名 이름을 날리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이전의 마음이 동심입니다.

동심은 붉을 적자로 赤子之心이라고 갓난아기의 마음인데, 언어가 아닌 원초의 본래심으로 길가 지나가는 누구나 갖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마음을 뜻합니다. 동심의 양지가 사람마다의 마음에 이미 구비되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주에 편재하는 생명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 뜻은 인간이라는 동일성은 우주라는 동일성에 포섭되거나 아니면 동등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童心은 이탁오만의 생각은 아니며 2,500년 전 노자에서 양명학 창시자인 왕수인(王守仁, 1472-1529)에 이르는 자유로움과 순구함을 강조하는 인간 본성론 전통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직 동류자이니
새나 짐승이 슬피 울거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측은히 여기는 불인지심이 있게 되는데
이것은 그 仁이 새나 짐승과 일체가 된 것이다.” (왕수인 大學問 중에서)

이탁오의 동심은 자유를 추구하는 마음이 모여서 차별 없는 공동체를 추동하는 마음의 원형입니다. 이런 동심론은 이탁오 철학의 중요한 특징이죠.

동심의 평등성은 친구의 평등성으로 이어지면서 평등사회 혹은 수평 공동체의 지향성으로 이어지는 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전통 유교의 수직적 인륜의 관계조차 친구 사이의 수평 관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과감한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인륜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양여원은 그 중 네 가지를 버리고, 다만 몸을 사우성현(師友聖賢) 사이에만 두었다.”라고 하면서 의(義)·친(親)·별(別)·서(序) 등은 상하 관계의 종적인 윤리이므로 버리고, 스승과 벗 사이의 신(信)은 횡적인 윤리이므로 취한 것이라 하였습니다(焚書 「하심은론(何心隱論)」 삼강오륜 편).

조금 쉽게 말한다면, 오륜에 해당하는 父子有親/君臣有義/夫婦有別/長幼有序/朋友有信라는 유교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 중에서 부자간 관계, 군신간 관계, 부부간 관계, 장유간 관계는 수직적인 차별관계인데, 이탁오는 이 4 가지 관계를 친구간의 수평관계로 바꾸거나 고쳐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말조차 인간 혁명에 가까운 뜻을 담고 있는 것이겠죠.

나아가 이탁오가 말하는 친구는 4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함께 먹고 마시는 것에 그치는 친구이며 둘째 시정에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친구 그리고 함께 놀러 다니는 친구가 있지만 진짜 친구는 생사를 맡길만한 친구라고 합니다.(이탁오 분서1권, 429)

이때 친구는 평등하면서도 서로에게 의지하지만 서로에게 자유로운 관계를 말하는데 이런 평등, 상호의존과 자유를 유지하는 상호관계를 ‘공생’이라고 표현합니다.

3.2 허균의 평등사상

공동체를 평등하고 차별 없는 공생 관계로 보려는 이탁오의 공존의 평등론은 조선시대 허균의 평등사상으로 연결됩니다. 홍길동전과 허생전 저자인 허균(1559-1618)은 1564년 작 讚李氏焚書에서 이탁오의 분서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탁오의 <도고록> 일부를 번역하고 이탁오와 허균의 사상관계를 연구한 윤남한은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은 이탁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가원은 중국 오택의 <유고반도 이탁오>에 비유하여 허균을 <한국의 이지>라고 표현했습니다.(이가원 2000)

근대조선사상사 연구자인 유명종과 금장태도 마찬가지로 이탁오와 허균의 상관성을 확인해주었습니다(유명종1983; 금장태2007). 나아가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의 양반저과 허생전에서 이탁오의 영향을 볼 수 있다고 금장태는 논증했습니다.(금장태 2007)

조선사회에서 허균의 평등사상은 크게 확산되지 못했지만, 평등의 씨앗을 조금씩 뿌렸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런 평등의 씨앗은 조선 후기 실학과 조선 양명학의 거름을 받아 동학의 평등사상으로 줄기를 키웠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 만물일체의 생태학적 평등철학 - 동학의 생명사상

세기 말 동학의 평등사상은 힘없는 못사람 하나하나마다 소중한 생명의 권리를 자각하게 된 계기입니다. 평등권이 생명권이라는 점에서 평등론은 생물학적 공생론으로 바꾸어 말해도 됩니다. 이것이 동학 생명사상의 기초개념입니다.

동학의 공생철학은 평등사상의 발로에 있었습니다. 사람과 하늘이 공생이며, 땅과 하늘이 공생이며, 땅과 사람이 공생이라는 거죠. 사회적으로는 군주와 백성이 공생이며, 부모와 자식이 공생이며, 어른과 아이가 공생이며, 여자와 남자가 공생인 것입니다. 공생이란 서로를 섬기는 일이며 서로에게 평등하며 서로에게 싸우지 않으며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19세기말 조선은 추상적인 형이상학의 구조에서 벗어나 개인의 구체적인 자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자유로 가는 길에는 당대의 시대적 장벽이 가

로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장벽이란 첫째 이기론 중심의 성리학이었고, 둘째 기독교와 같이 들어온 서구 외세의 침탈이 커졌으며, 셋째 확장 일로에 있었던 일본 제국주의의 횡포가 만연해졌다는 점입니다.

장벽을 딛고 넘어선 생명의 씨앗은 트여져야 했습니다. 군주의 천명으로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성리학적 세계관과 달리 개인의 자유를 통해서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희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평등한 삶에 대한 민중의 희망을 대변하는 지식체계가 등장했는데, 그것은 i)동학과 ii)대종교 그리고 iii)민중화된 양명학이었습니다.

힘들게 성취된 생명의 씨앗은 불행히도 일제 강점에 부딪혀 싹을 틔우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씨앗은 두 가지 구실을 합니다. 하나는 호조건에서 싹을 틔우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악조건에서는 오히려 싹을 틔우지 않도록 씨앗의 생명성을 호조건이 될 때까지 기다리며 고이 간직하는 일입니다.

역사적 악조건을 거치는 전환 시대에서 생명의 씨앗은 발아를 멈추다가 동학운동을 통해서 미소하게나마 평등의 싹이 트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명의 씨앗으로부터 발아된 평등의 싹과 뿌리가 나오니 우리는 현대 생명사상의 뿌리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자유의 싹과 평등의 뿌리는 동학 사상의 최제우, 최시형, 이돈화, 김기전이며, 대종교 사상의 전병훈, 나철, 이기, 서일, 또한 양명학 계통의 신채호, 이회영, 이건창, 박은식으로 이어지는 지행합일의 선구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동학의 생명사상		
동학 사상	대종교 사상	양명학 계통
최제우, 최시형, 이돈화, 김기전	전병훈, 나철, 이기, 서일	신채호, 이회영, 이건창, 박은식
계급과 차별 없는 생명존중	우주적 공생	자기-자각과 생명의 현존성

생명의 씨앗을 틔운 이들의 공통점은 생명의 힘을 우리 내면의 마음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자각하는 데 있었습니다.(이규성 2015, 765)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의 해방과 인격성의 자유입니다.

둘째 계급과 성차에서 벗어난 평등성입니다.

셋째 보통 사람들은 계몽과 계도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사람은 원래부터 자유 실현과 생명 회복력을 스스로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생명이 생명다워지려면 사회경제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지주의적인 관점으로 해명될 수 없는 삶의 세계를 사는 구체적 현존성입니다. 예를 들어 동학사상은 주체적 개체성, 계급 없는 평등성, 개인의 마음 안에 세계의 진리가 구현된다는 우주론적 자아론 및 사회경제적 자립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동학운동과 힘을 같이 했던 대종교 사상과 조선 양명학 사상이 있는데, 대종교 사상은 평등함과 경제적 자립 및 삶의 현존성 그리고 누구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범신론적 종교관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양명학 사상은 앞서 말한 心即理에 기반한 양지의 이론으로 개체성-평등성-선천적 도덕론, 자립성, 실천성 모두를 지향했습니다.(이규성 2015, 3부9장)

삶의 자유를 희망했던 <생명력>의 뿌리				
개체의 주체	인권의 평등	마음의 선천성	경제적 자립	실천지향의 현존성

이 시기에 형성된 생명사상의 중요한 관점은 풀 한 잎, 한 잎의 작은 생명이 우주의 생명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계급이나 성별, 지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생명의 소중함을 안고 태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은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백성 한 사람마다에게서 대생명의 흔적을 찾아내어 되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 전통의 성리학 전통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기존 성리학에서 대인은 소인이 지향해야할 모델이며, 거꾸로 소인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계도되어야 할 계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존 유가적 수양론에 의하면 성인의 훈교를 통해 무지한 자는 무지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무지한 자가 훈교되지 않는다면 계속 무지한 채로 남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군자가 소인을 훈교하도록 정초된 성리학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동학은 세상의 도탄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이규성 2015, 24) 이렇게 생명사상의 씨앗은 일방적 계몽정치를 부정합니다. 오히려 개인들 즉 백성은 이미 남녀의 평등성, 아이와 어른의 평등성, 양반과 상인의 평등성의 마음을 선천적으로 구비한 상태라고 합니다. 단지 그런 마음이 미발현 상태일 뿐이라는 철학적 존재론을 표명합니다.

동학 2대 교주 해월 선생의 생명사상이 어린이와 어른 사이의 평등성으로

풀어 말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어린이”라는 말은 동학 3대 교주 손병희(孫秉熙, 1861-1922)의 사위인 방정환에 의해 만들어진 말입니다. 해월 선생 당시에는 없었던 말이고 한참 이후 만들어진 말이지만 “어린이”라는 말을 소급해서 사용하기로 합니다.

- 어린이를 억지로 가르치려거나 훈계하지 않는다.
- 어린이 앞에서 잘난 체 하면 어른이 바보다.
- 여자나 남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인격적으로 동등함을 매번의 행동 전에 되새긴다.
-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자식)를 때리지 않는다. “어린이도 한울이니 아이를 때지리 마라”
- 어린이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아이에게는 동몽접장, 아녀자에게는 부인접장이라고 호칭한다.
-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으며 자연적이고 나의 동기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 폭력으로는 상대를 강제도 못하고 추종도 시킬 수 없다.

방정환(方定煥, 1899-1931)의 어린이 철학은 생명사상의 구체적 실천운동입니다. 아동문학가이며 민족운동가인 방정환은 미래를 보는 눈으로 어린이를 주체적 인격으로 볼 것을 우리들에게 알렸습니다. 아이를 한울님으로 대해야 한다는 수운 최시형 선생의 경전 <해월신사법설>에 영향받아 구습과 적폐를 거부하며 인간존중의 생명사상을 펼친 것입니다.

방정환 추모비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 .

희망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 ”



생명은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방정환 선생은 강조한 것입니다.

어린이가 어른의 걸핍이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의 종속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성평등의 철학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과 나이 계급을 초월한 생명의 동등성은 실천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그

래서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여자와 어린이에 대한 태도가 더 없이 중요하다 하고 해월 선생은 강조합니다.

일상생활에서부터 독립운동과 민족자강운동으로 이어진 조선 양명학과 대종교를 포함한 동학의 생명사상의 핵심은 실천철학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독립운동가 신규식(申圭植, 1880-1922)이 일제에 항거하며 독약을 마셨는데, 죽음 대신에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그후 신규식은 한쪽 눈으로 보기를 마치 세상을 즐겨보는 것과 같다고 해서 그는 자신의 호를 즐겨본다는 뜻으로 예관(畵觀)이라고 스스로 붙였습니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5, 344)

신규식의 예관이란 반성하고 비판하며 행동하는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 바로 생명철학의 요체입니다. 생명철학은 출세와 입신양명의 도구로 전락한 지식을 비판하며, 권력에 결탁하는 지식을 거부하는 비판과 성찰의 앞인 것입니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5, 341)

동학으로 촉발된 생명사상은 일방향적 군주정치나 성인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동학은 빈한한 유랑 지식인들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크나큰 인간관의 변혁을 일으킨 역사적 계기입니다. 동학운동이 비록 일제와 외세에 대한 저항에 있어서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마음속 자유와 평등이 무엇인지를 새겨준 역사적 지향입니다.

동학의 생명사상은 이념적으로 평등과 자유에 있었으며, 방법론으로 실천에 있었으며, 내재적으로는 주체와 성찰에 있었으며, 궁극적인 철학의 지향은 생명다운 생명을 되찾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학의 생명사상은 평등사상의 발로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한울이니 사람을 한울처럼 섬기라”는 평등사상은 누구나 자기 안의 한울님을 찾아내어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5, 84)

기존 성리학에서 주체가 군자이거나 군주이었지만, 이제 백성 한 사람마다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무계급의 평등철학조차 생명사상이라는 동학의 기본 구조에서 나온 것입니다.

동학 1대 교주 수운 최제우(1824-1864) 생명사상의 핵심은 생명의 원리가 저 세상에 초월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함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생명원리가 곧 한울이며 한울이 곧 생명원리인데, 그런 생명원리는 이미 내 안에 있으니 무엇이 더 겁나고 무서울 리 있겠느냐는 질문을 수운 선생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던진 것입니다.

수운의 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5, 77)는 말이 곧 생명사상이 원형이며, 이 말은 동학 사상의 핵심인 내 안에 있는 한울을 모신다는 시천주侍天主 사상의 표현입니다.

이제 동학운동이 다른 사회운동으로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를 검토해 봅시다.

단군교로 시작한 대종교의 창시자 나철(1863-1916)은 단군을 부흥시키는 일에 머물지 않고 일제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서 국권회복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천지인, 혹은 환인-환웅-환검이라는 세 구성체는 소위 절대 구원이라는 종교적 특성을 넘어서 현실 속의 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천지인의 세 구성체는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이 생명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데, 인간이 살면서 겪는 “느끼고 숨 쉬고 부딪치는” 세 가지의 ‘세 길’이라고 했습니다.

단군의 의미를 일상적 현실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의지였습니다. 인간은 이 세 길 사이에서 방황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런 존재론적 방황이 곧 생명의 힘인 것입니다. 일상과 현실에서 구현되는 생명의 의지는 당시 만주 독립운동에서 동학군과 단군교도들의 전투로 실현되었으며, 일제의 폭압에 밀려 단군교라는 이름을 버리고 대종교로 개명했을 정도로 아픈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민족 개념이 들어온 역사는 짧습니다. 그나마도 민족 개념은 박정희 군부독재 국가주의를 옹립하기 위한 이념적 선전도구로 왜곡되었었습니다. 이념적 도구가 아닌 주체로서의 민족 개념을 처음으로 안착시킨 철학자는 바로 신채호(1880-1936)였습니다.

신채호는 성균관 박사(교수 지위)로 임용되었지만 과감히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첫째 이유로서 전통이 유교적 세계관으로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둘째 이유는 자신의 스승 신기선을 포함해서 당시 유가적 전통을 따르는 집단이 친일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분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외적 역사와 내적 성찰을 거치면서 신채호는 군주와 양반 중심의 일방향적 군주 사회가 아니라 백성과 민중이 주인되는 민족 개념을 형성하였습니다.

신채호의 민족주의는 오늘날 해석에 따르면 ‘방어적’ 민족주의에 해당합니다. 민족이란 민중이 주인 되는 주체의 국민을 의미하며, 서구식으로 말하면 시민에 해당합니다. 신채호는 나중에 국가 차원의 주인정보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더 중시하게 되는데, 결국 신채호의 철학적 관심은 1928년 이후 민족주의에서 탈피하고 사회진화론의 영향력에서도 벗어나서 아나키즘으로 변화합니다.

신채호는 단순히 민족주의자나 독립투사만이 아닌 것입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주체들이 자기성찰과 자기각오를 통해 궁극의 자유를 창조하는 사유의 발판”을 세우려는 것이 신채호의 궁극적인 생명철학인 것입니다.(한철연 194) 신채호 철학의 의미는 자유를 기반으로 개인의 의지에 따라 사회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생명의 신호였다는 뜻입니다.

5. 공생생물학과 동학 생명사상의 접합

동학의 평등사상은 힘없는 못사람 하나하나마다 소중한 생명의 권리를 호

소하는 실천철학입니다. 현대철학에서는 시민의 생명성이란 개인의 평등성에 연계됩니다. 조선 말기 횡행했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그리고 외세 착취와 억압에 저항하는 원동력은 바로 생명사상에 있었습니다.

“내 안의 시천주侍天主”라는 동학사상의 핵심은 나와 너의 평등한 생명권에 있습니다. 나와 너, 서로가 다투지 않고 공생함으로써 서로를 모시고 섬기는 생명사상은 생명권을 지키는 실천원리인 셈입니다.

공생생물학의 평등성과 다양성을 시사하는 아래 두 장의 그림으로 생명사상을 유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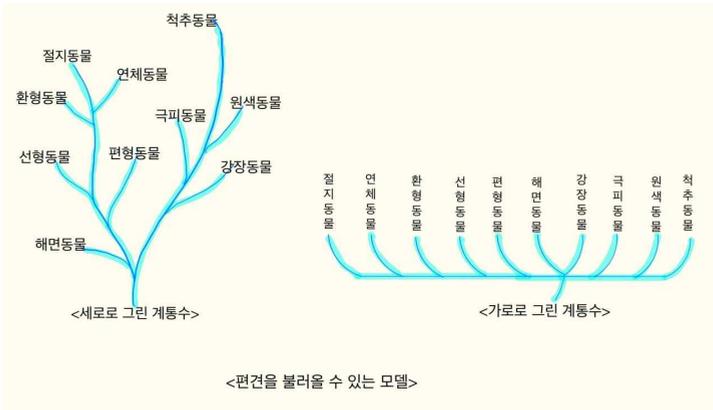


그림1: 생명의 갈래를 수직으로 그려왔던 편협된 지식로부터 우리들의 이념적 편견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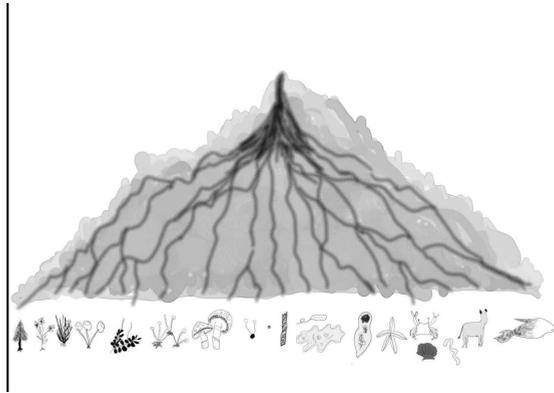


그림2: 오늘 현존하는 무수한 생명종들은 각기 산꼭대기에서 흘러내린 물 갈래 계곡의 끝과 같다. 생명종 사이의 차별은 없다.

공생생물학의 철학적 의미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생명의 생물학적 특징		생명의 철학적 의미	
개체보전성 특징	대사	특이성	개체마다의 차이는 우열이 아니라 자신의 고유한 특이성이다.
	반응	상관성	항상 운동하며 에너지를 교환한다.
종존속성 특징	증식	순환성	개체독자성이 있지만 고립되어 있지 않으며 상호의존적이다.
	진화	역사성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현존재는 30억년 생명사의 누적된 산물이다.

@philonatu

생명권리의 구체적 모습은 인간의 인간됨으로서 평등권이며, 그것은 앞의 1절에서 말한 공생의 특징입니다. 공생 생물학의 요점은 (i)더불어 삶 living together과 (ii)상대의 차이를 인정하는 생명 다양성 그리고 (iii)평등한 공존coalescent과 공생symbiosis의 생명권입니다.

결론으로 말해서 다투지 않는 공존성, 차별없는 평등성, 서로를 인정하는 다양성이란 생물학적 공생론의 핵심이며 동시에 동학 생명사상의 뿌리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동학사상의 생명사상을 현대생물학의 공생론과 연결될 것입니다. 이 강의에서는 이런 연결이 하나의 연결점으로 축소되지 않고 전체적인 연결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연결망을 접합의 만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접합의 만남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서로의 고유성이 보장되는 만남을 말합니다. 동학의 생명사상은 인문학이며, 현대생물학의 공생론은 자연과학입니다. 이 두 분야의 범주를 무시하고 무조건 등치시킨다면 생명사상은 허황된 길로 빠지고, 공생생물학도 맹목의 길로 빠질 것입니다.

접합은 서로를무조건 합치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소리를 경청하는 소통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접합은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소외와 욕망의 인간본성론 문제를 긍정적으로 접근하는 통로입니다.

동학의 생명사상과 생명과학의 공생론이 서로에게 접합하는 맥락과 접점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공부는 소외와 욕망에 빠진 우리들을 일깨우는 삶의 추동력으로 될 것입니다.

과학적 관찰과 철학적 성찰, 그 어느 것도 빼트릴 수 없는 그런 공부가 소중합니다. 생명과학과 전혀 다른 범주인 조선의 영명학과 동학사상의 소통은 한 번에 끝날 지식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관찰과 성찰의 습관을 키우는 일이 더 중요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강의내용 출처>

금장태 2007, "근대적 변혁기의 한국양명학", 종교학연구(2007)

박맹수 1986, "해월 최시형의 초기 행적과 사상". 청계사학 3권(1986):

- 박맹수 2014, “동학계 종교운동의 역사적 전개와 사상의 시대적 변화”.
한국종교37집: 53-87
- 신용철 2017, 『이탁오와 조선의 실학』. 탐구당
- 엔리에산, 주지엔구오(홍승직 옮김) 2019, 『이탁오평전』. 돌베개
- 오문환 편 2005, 『수운 최제우』. 예문서원
- 유명종 1983, 한국의 양명학. 동화출판공사.
- 이가원 2000, 유교반도 허균.
- 이규성 2012, 『한국현대철학사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탁오(김혜경옮김) 2004, 『분서』 I, II. 한길사
- 전호근 2018, 『한국철학사, 원효부터 장일순까지』. 메멘토
- 최종덕 2016, “현대한국생명사상의 확립: 함석헌과 장일순” 『비판적 생명 철학』. 당대
- 최종덕 2016, 『비판적 생명철학』 당대
- 최종덕 2023, 『생물철학』 씨아이알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5, 『처음 읽는 한국 현대철학』 동녘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2018, 『길 위의 우리 철학』